

### 광주일보 제8기 독자위원회 제7차 회의

11월 23일 광주일보 14층 회의실

광주일보 제8기 독자위원회 제7차 회의가 지난 23일 광주시 동구 광주일보 1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김윤하 위원장을 비롯한 조미옥·이묘숙·이수학·강대석·김남기·안평환 위원 등 본사가 위촉한 독자위원 10명 가운데 8명이 참석했다.

# “청소년 이야기 늘어 세대 공감...다문화도 적극 관심을”

▲이묘숙=가슴이 따뜻해지는 기사, 소소하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미소를 짓게 했던 기사가 있다. 지난 18일자 22면 ‘유기견 통해 생명의 소중함 깨달았어요’라는 기사는 10대 청소년들의 폭력과 일탈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보기 드문 소식이었다. 시골 아이들이 작은 생명을 위해 모금활동 벌이는 등 책임감과 소중함을 느끼고 있다는 사소한 내용일 수 있지만, 자녀 키우는 부모나 학생들 사이에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기사였다. 작은 일이 오히려 친근하게 다가오는, 작지만 울림 있는 기사들을 발굴하는데 조금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

기획기사인 ‘블루오션 다도해’의 경우 기사와 편집이 돋보였다. 특히 운율에 맞춘 시적인 표현의 제목들이 가슴에 와닿았다. 17일자 18면 고급도·약산도 편에서는 한글의 멋스러움을 잘 살린 제목과 디자인이라고 생각한다.



이묘숙 송은갤러리 관장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문제점 잘 지적  
작지만 울림 있는 이웃 소식 발굴을

13일자 16면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오늘 폐막’ 기사에서는 디자인비엔날레에 대한 문제점들을 정확히 짚어냈다. 광주 아트페어가 관람객 7만여명이 넘었던 것에 반해, 디자인비엔날레가 관람객 6만여명에 머물렀다는 것은 투입된 예산과 규모에 비해 굉장히 적은 숫자다. 이에 대해 적절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방향과 대안까지 제시해 돋보였다.



강대석 남도향토문화연구원장

예산·인사 영·호남 차별 감시역 계속  
지역 중기제품 소개 고정면 생겼으면

다만, 지난번 경제면과 자동차면의 차별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었는데, 지난달 29일 14면(경제면)에서 되풀이 됐다. ‘도요타, 올 세계 판매 750만대...폭스바겐 제치고 1위’라는 기사가 대표적이다. 이는 자동차면에 더 어울리는 기사로, 지역과 연관성 없어 독자들에게 유익하지 않은 기사일 수도 있는 만큼 세심한 배려가 아쉽다는 판단이다.

▲강대석=광주일보가 국회 예산심위 기간에 맞춰 지역발전 위해 노력하는 점이 눈에 띈다. 지난 11일자 1면 ‘영남 7천억 퍼주고...호남·충청 2천억 줄이고’ 기사와 13일자 1면 ‘달빛동맹 광주·대구 예산동맹’ 기사가 대표적이다. 이 기사에 따르면 광주의 예산이 대구에 비해 8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실제 더 차이가 날 것이다. 광주일보가 앞으로도 정부예산 반영사항을 영남권과 비교해 감시하고 집중적으로 심층보도할 필요가 있다.



이철갑 조선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

‘수은 유출사건’ 노동문제 접근도 필요  
내년 시행 ‘농업인 보험’ 심층 보도를

또 17일자 3면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세계수영선수권 예산 되살려라’라는 기사는 지역의 현안을 타 시·도의 사례와 비교해 정부를 압박하는 것으로 설득력이 있었다. 역대정부의 지역 차별적인 인사와 예산편성이 되풀이 돼 왔다. 앞으로 광주일보가 감시자의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소개하는 18일·19일자 14면은 우리도 모르는 우수한 지역의 제품들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지역 중소기업 제품들을 알려주는 고정면도 생겼으면 좋겠다.

▲이철갑=광주일보가 그동안 수차례 보도했던 허성관 광주 전남연구원장이 결국 사퇴했다. 이후 비어있는 연구원장을 제임 명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후속 취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 광주와 전남이 상생하기 위해서 빛가람혁신도시가 가장 중요하다. 이 혁신도시 내 아파트 분양에 허수가 많다고 들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광주와 연결되는 교통망이 시급한 과제다. 올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취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조미옥 빛가람중학교 수석교사

예술작품 같은 사진에 수업이 즐거워  
‘다도해’ ‘시간속...’ 가보고 싶은 기사

최근 광주 남영전구의 수은 유출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환경과 노동문제가 겹쳐있는 사건으로, 점차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시 철거작업에 투입된 인력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환경오염만 취재가 집중돼 아쉽다. 노동문제에 대해서도 짚어봤으면 한다.

또 내년 1월7일부터 ‘농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농도’인 전남지역 농민들을 위해 이 법률에 대한 문제제기와 효과 등을 심층적으로 다뤄주기를 바란다. 신당 창당 과정과 관련, 현재 진행되는 방향이 어찌지, 지역민들은 어떤 부담을 갖고 있는지 등을 광주일보만의 입장을 가지고 방향을 제시해줬으면 한다.

▲조미옥=신문은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기사들이 있으나, 감성적인 기사도 중요하다. 광주일보가 중앙지와 타 언론과 차별화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사진’이 아름답다는 것이다. 마치 지면에 실린 사진이 예술작품을 보는 듯 눈이 호강스럽다. 학

생들과 신문을 활용한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행복해 했다. 광주일보가 주는 ‘행복함’을 유지하길 바란다.

23일자 20면(스포츠)은 ‘프리미어 12’를 본 감동이 느껴질 수 있는 ‘유쾌·상쾌·통쾌’라는 편집으로 돋보이게 제작했다. 또 ‘블루오션 다도해’와 ‘광주 시간속을 걷다’ 등 기획기사들은 ‘가보고 싶다’는 느낌을 전달해 준다. 중앙지와 다른 광주일보만의 특색이자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이따부터 월요일마다 게재되는 22면 ‘전라도장터 사람들’은 소소한 이웃들의 삶을 엿볼 수 있어 좋았다. 묵묵하게, 소박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았으면 한다. 유기견을 보살피는 학생들의 이야기처럼, 지면에서 어른 중심이 아닌 학생과 아

김남기 광주도시공사 전문위원·사회가



배워라! 주류업계 변화시킨 젊은 CEO  
담아라! 다문화 인재 육성 전담기관·정책

안평환 광주YMCA 사무총장



마을 공동체 소개 늘려 확산 도와야  
‘수은’ 계기 생활속 위험요소 다뤄주길

이수학 이수학법률사무소 대표



자영업 연말정산 정보 제공  
농업분야 FTA 대응방안 제시

김윤하 전남대병원 진료처장



‘낙도 수험생’·‘새정치 명단 파문’ 돋보여  
‘5·18 언론상’ ‘일경언론대상’ 수상 축하

이들의 이야기가 다뤄져 균형을 맞춰나가고 있어 흐뭇하다. 조금 더 바라는 게 있다면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정 학생들 등 사회적 약자에게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특히 전남은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김남기=우선 독자위원회가 형식적인 제도도 아니라 지면개선을 이끌어내 좋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지난 12월 14면에서 보해양조의 임지선 대표이사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30대 젊은 CEO의 젊은 마케팅 감각이 주류업계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 가슴에 와닿았다. 광주일보도 보해양조의 젊은 대표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다문화가정과 이주민 등 다문화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직원의 10%를 다문화 이주여성으로 채용한 시엔 병원의 사례를 기사화해 좋았다. 앞으로 호남과 국가발전을 위해 다문화가정 출신 인재를 키우는 게 시급하다고 본다. 이들을 위한 통합된 전담기관과 정책을 마련하는 방안 등 광주일보가 적극적으로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6일자 23면 기고 ‘호남의병 정신을 되돌아 보자’(범지환 호남의병연구소장)는 의병정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글이었던 평가다.

▲안평환=아시아문화전당 공식개관 앞두고 지속적인 기획보도가 좋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집중 소개하고 판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광주일보가 꾸준히 해줬으면 좋겠다.

광주는 5·18민주화운동을 계기로 민주 인권도시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현 상황에서 중요하게 다뤄야할 사안은 바로 ‘공동체’라고 생각한다. 풀뿌리 마을 공동체가 지역 곳곳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이 움직임을 심층적으로 다뤘으면 한다. 마을 단위에서 벌어지는 공동체가 소개되면 보다 더 확산되고 일반화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지난 12월 6면 ‘맹독수은 포함한 폐형광등 깨뜨려 일반 쓰레기봉투에’라는 기사는 개인적으로 수은중독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학생시절 배웠던 사실도 시간이 지나며 잊혀져가고 무감각해져 관심이 없어졌는데, 생활 속 수은중독 사례를 되짚어 주는 기사가 좋았다. 큰 사건과 사고를 계기로 일상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짚어내 주시길 바란다.

▲이수학=광주와 전남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있다. 곧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는데, 불필요한 세금문제에 휩싸이지 않도록 적절한 정보제공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또 선거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새로운 인물이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치권 진입장벽을 낮춰주고, 시민들이 새로운 인물을 객관성 있게 선택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기사도 필요하다.

또 중국과의 FTA가 심각한 문제다. 광주일보가 그동안 중국과의 FTA 문제를 잘 지적해주고 있었다. 전남은 전국 최대 농업 지역이다. 광주와 전남이 공업분야에서 소외됐다고 하는데, 농업까지 중국과의 FTA로 타격을 입으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방향 등을 제시하고 심층 보도했으면 한다.

이제 2015년을 뒤로하고 곧 새로운 2016년 한해가 시작된다. 그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다. 정리될 문제들을 일찍이 정리하고, 새로운 목표에 도전할 수 있도록 광주일보가 지원점을 잘 잡아나갈길 바란다.

▲김윤하=이탈은 무엇보다 수능이 있는 시기여서 수많은 학부모와 수험생들은 각 대학의 예상 합격선에 관심이 많았을 것이라 본다. 12일자 7면에서는 낙도지역 수험생들의 1박2일 수능 상륙작전이라는 기사가 돋보였다. 수능원점검의 실태를 잘 보여줬다.

또 13일자 1면 사진은 수능이 끝난 뒤 수험생과 그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순간의 후련함을 느낄 수 있어 독자들의 공감을 살 수 있는 ‘한컷’이었다.

12일자 1면 ‘현역의원에만 당원 명부 배포 발각’이라는 기사는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이 각 선거구 관리당원 명단을 지역위원회에 배포해 파문이 일고 있다는 단독보도로, 내년 총선을 앞둔 선거정국에서 공정선거를 유도하고 감시한 돋보인 기사였다. 다만, 기사에서 오타자가 계속해 나오고 있는데, 신뢰할 수 있는 신문이 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고 싶다.

얼마 전 전주로 출장을 가서 한옥마을을 방문했다. 전주는 관광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지역 수익창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전주의 사례는 20~30년 전부터 꾸준한 노력이 바탕이 된 것으로, 광주도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이 지역민들의 수익창출에도 움될 수 있도록 광주일보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

끝으로 이따에는 기분좋은 소식이 많았다. 광주일보 기자들의 5·18 언론인상과 일경언론상 수상, 그리고 13일자 2면 지방신문 신뢰도 조사결과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지역을 위해 노력하는 광주일보가 되길 바란다.

/정리=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 전천후 시공성 | 절연방식 시공 | 내구성 탁월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옥상방수 | 대한건축사협회 |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외벽 패턴 | 시공후

※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아트패션시트 카탈로그) 다양한 아름다운 패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